

내외 소식

청주 지부, 예배당 수리 기공식 갖다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1일까지 새로 구입한 예배당의 수리를 위하여 지부의 거의 모든 회원이 참가하는 열의를 보였다.

함께 실은 사진은 회원들이 침례탕 자리를 파기에 열중해 있는 장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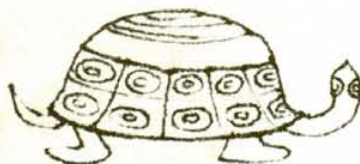


이 동기 자매 금상 획득하다

청주 지부의 회원인 이 동기 자매는 지난 3월 13일 중앙일보사 「여성 중앙」에서 주최한 제 3회 「50만원 가계부상」에 응모하여 최우수상인 금상을 획득하여 상패와 부상 50만원을 받았다.

이 동기 자매는 지난 73년 12월에 침례를 받았으며 현재 초동협회 서기의 부름을 받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

그는 또한 '72년도에도 「여성 저축 생활 중앙회」 주최 가계부상에도 응모하여 「건실한 생활상」이라는 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8와드 우승!

스테인크 부장배 쟁탈 배구 대회에서



8와드는 4월 5일 선교부 배구장에서 서울의 8개 와드와 신촌 지부 등 9개 팀이 참가하여 열전을 벌인 배구 대회에서 우승, 스테이크 부장이 수여하는 트로피를 받았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모임에는 스테이크 부장단의 김창선, 최옥환 두 보좌와 스테이크 축복사이신 김종균 형제님, 고등 평의원, 감독 다수가 참석하였다.

9개팀이 즉석에서 추첨으로 대진표를 정하여 벌인 경기에서 8와드는 그간 연습한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추첨으로

비교적 쉽게 올라 온 4와드를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놀러우 승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서울 와드는 8와드와의 경기에서 안정된 플레이로 8와드를 괴롭혔으나 게임을 역전시키지 못하고 패하여 3위에 머무르고 말았다.

영남 지방부, 지방대회 갖다

지난 3월 23일과 24일 양일간에 걸쳐 부산 지부에서는 제 25차 영남 지방대회가 성황리에 거행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축복」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약 350여명의 지역 성도들이 참석하였다.

또 이날 모임을 감리해 주셨던 브라운 선교부장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해 주셨으며 한 인상, 박 재암 두 부선교부장과 장 재환 지방부장은 가족의 전도와 심판에 대하여 그리고 가정의 밤의 중요성이란 주제로 각각 말씀하셨다.

또 브라운 선교부장은 영남 지방 특유의 느린 찬송을 지적하시고, 성도들이 함께 찬송을 할 때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야 하며 “개가 꼬리를 흔들어야지, 꼬리가 개를 흔들어서는 안된다”란 속담을 인용, 이는 교회의 모든 활동에도 적용된다고 하셨다.

이번 대회를 통하여 선교부 주일학교 회장으로 일해오던 김용일 형제가 선교부 서기로 부름을 받았다.

워싱턴 디 시 신전

교회의 16번째 신전인 워싱턴 신전이 완공을 앞두고 있다. “이 거대한 사업을 하는 데는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맡은 사람들은 전력을 다하여 이번 여름까지의 완공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교회 건축가 에밀 페체의 말이다. 1974년 8월 1일 신전 공개, 10월 경에는 헌납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전이 헌납되면 다른 15개 신전과 마찬가지로 죽은 자와 산 자를 위해 행하는 현세와 영원을 위한 침례, 엔다우먼트, 결혼 등의 성스러운 의식을 집행하는 곳으로 사용될 것이다. 이 신전으로 미국 동부에 살고 있는 30여만 회원과 캐나다, 남미의 회원이 큰 혜택을 보게 되었다.

이 새로운 신전은 매리랜드주 켄싱턴에 있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 디시의 울창한 삼림 지역에 세워진다. 규모로 보아 가장 큰 몰몬 신전이 되는 워싱턴 신전은 1962년 교회에서 구입한 57.4 에이커의 대지에 세워진다. 삼림 57 에이커 중 5분의 1만 신전 건축을 위하여 나

무를 잘라 내었으므로 신전을 격리시킨 듯한 느낌을 준다. 알라바마주에서 수송한 빛나는 흰 대리석은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그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을 끌기에 충분하다.

기공식은 1968년 12월에 당시 대관장단 제 1 보좌였던 심이사도 정원회의 휴비 브라운 장로의 감리하에 가진 바 있다.

—워싱턴 신전은 미국의 동부 지방의 교회를 외부적으로 대표한다.

—이 신전은 그 설계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는 영구성을 지닌다.

—이 신전은 솔트레이크 신전을 그대로 모방한 것은 아니나 솔트레이크 신전을 생각해 하는 것이므로 말일성도 신전이라고 연상될 것이다.

1968년 11월 5일,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이 신전 건축 결정을 발표할 때, 그는 이 신전을 “모든 신전 중의 보석”이라고 언급하였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리석으로 장식된 최초의 신전이 되고 보니 맥케이 대관장님의 말이 적중했다고 볼 수 있다. 신전의 걸

인천지부, 지부 대회 갖다

지난 3월 17일 인천 지부에서는 약 150여명의 성도가 참석한 가운데 훌륭한 지부 대회를 가졌다.

3월 15일에 가진 모임에서는 초등협회와 아론 신권 향상회가 특별 활동 순서를 마련하였는데 초등협회는 고전 무용과 발레판, 양재기 뚜껑을 이용한 잉터리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보여 주었으며 아론 신권 상호 향상회에서는 푸치니의 오페라 라보엠을 공연, 4막이 끝났을 때는 관중들의 환호로 장내가 떠나갈듯 하였다.

또 15일에는 상호 부조회 132주년 창립 기념일을 맞아 지부에서는 「초대 상호 부조회의 어려움」을 극화하여 보여 줌으로써 당시의 상황을 잘 설명해 주었다.

마지막 날 가진 주일학교도 모두 경건하고 훌륭한 모임으로 연 3일간의 대회를 마칠 수 있었다.

안내 및 발간 예정

1. 물론경, 교리와 성약, 값진 전주의 합본이 다시 발간된다. 가족 표지의 이 합본 경전 배부는 7월말이 될 것이다.
2. 교사 자질 향상 프로그램 기초 과정이 개정판으로 발행된다. 늦어도 5월말에는 끝날 예정이다.
3. 물론경과 신약 성경을 공부하는 성도들은 와드나 지부의 세미나리 책임자나 신학 연구원 수강 회원을 통하여 자료를 빌려 보다 체계적인 연구에 박차를 가하여 주기를 바란다.

면을 장식하고 있는 대리석은 알라바마에서 채석하고, 테네시에서 다듬고, 버지니아에서 콘크리트에 주조하였다. 각판의 무게는 3 내지 6톤이나 된다. 강렬한 흰색을 부드럽게 하고 신전의 장엄함을 높이기 위하여 표면에 가볍게 줄무늬를 넣었다.

최근에, 건축 사상 가장 큰 기중기로 건축용 에나멜로 철근을 씌운 여섯개의 점탐과 5.5미터의 모로나이 금상을 신전 꼭대기에 들어 올려 놓았다. 지상에 서부터 모로나이 천사의 금상 꼭대기까지의 높이는 88미터에 달한다.

모로나이 금상은 유명한 솔트레이크 시티의 조각가인 아바드 페어뱅크의 작품이다. 모로나이 상에 대한 그의 설계를 설명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신전의 분위기와 건축 양식에 부합되게 조각하기를 원했습니다. 위로 향하는 열망을 나타내고 싶었죠. 저는 수직선을 강조하므로써 위로 향하는 감정을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저는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말일의 강림을 알리고 복음 계획을 가져다 주는 모로나이

천사를 생각했습니다.”

신전은 7층으로 되어 있으며, 7층은 영속한 회의실이다. 또 한가지 특이한 것은 유타주에 있는 프로보 신전이나 옥든 신전의 모양과 비슷한 해의 영광실 주변에 있는 6개의 의식실이다. 말일성도의 신전이 위치한 곳을 들어 보면, 유타주의 솔트레이크시티, 세인트 조지, 로간, 맨타이, 아이다호주의 아이다호 폴스, 하와이의 오아후, 레이, 아리조나 주의 메사, 캘리포니아주의 오클랜드, 로스앤젤리스, 캐나다의 카드스톤, 앨버타, 스위스의 본 근처의 줄리코헨, 뉴질랜드의 해밀턴 근처 투히카라미아, 영국의 런던 근처 링필드, 서레이 등지다.

물론의 신전이란 세계 도처에 산재하고 있어 모든 사람들이 참석하고 일반적인 예배 의식을 집행하는 집회소가 아니다.

신전은 오직 교회 교리에서 말하는 결혼이나 성스러운 의식을 집행하도록 특별히 사용되는 곳이며, 합당한 교회의 회원 만이 들어 갈 수 있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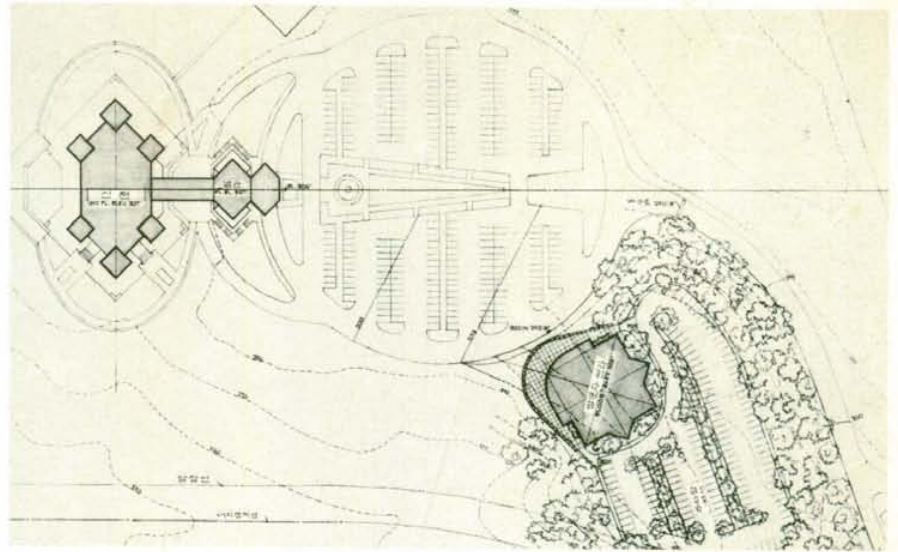
신전에서 행하는 일의 목적은 산 자와 죽은 자를 포함하는 만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구원의 복음 원리를 미치게 하는 것이다.

솔트레이크시티와 덴버 출신의 에드워드 이 드러리 이세 부부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워싱턴 디 시 신전장으로 임명되었다.

드러리 부부는 1973년에 3년간의 들라웨어-메리랜드 선교부장의 직책에서 해임되었다.

드러리 자매는 워싱턴 신전의 메이트런으로 봉사하게 된다. 이들은 대관장단에게서 새로운 부름에 성임되었다. 이 새로운 신전장과 메이트런은 신전이 준공되기 1년 전에 임명되어 수 개월동안 여러 신전을 방문하면서 신전의 진행 절차를 익혔다고 대관장단은 설명하였다. 드러리 신전장은 그와 함께 신전일을 도울 새로운 임원을 택하여 훈련시킬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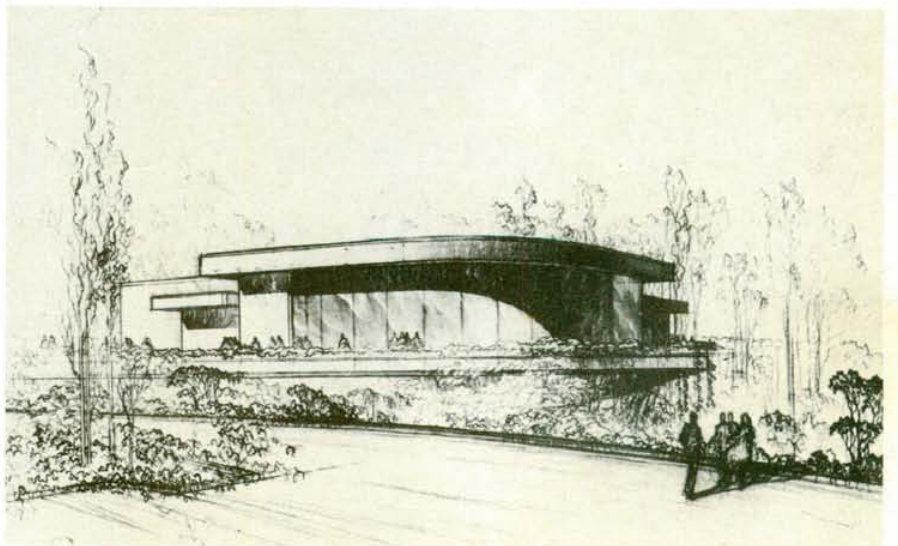
워싱턴 스테이크 부장 웬델 게데스 애메스 형제가 드러리 신전장의 제일 보좌로 봉사할 것이고, 포토막 스테이크 부장 바이런 파이프 딕슨 형제가 제일 보좌로 봉사할 것이다. 애메스 형제는 매리랜드주 실버 스프링에 살고 있으며, 딕슨 형제는 버지니아주 알링톤에 살고 있다.



57.4 에이커에 달하는 워싱턴 디 시 신전 대지에 세워질 방문자 센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워싱턴 디 시 신전 투시도



워싱턴 디 시 신전 대지에 세워질 방문자 센터 투시도.